

서세동점과 문호개방

담당교수 : 배민재

화이사상과 조공제도

- 19세기 중엽까지의 동아시아 세계
 - ‘中華’ & ‘夷’, 華夷秩序, 조공-책봉 관계
- 淸과 조선의 관계
 - 군신 관계, 서열 상의 우위, 무역
 - 상호불간섭의 원칙
- 조선-일본의 관계
 - 기유약조(1609)
 - 통신사 파견(조선→일본)
 - 대마도 영주의 역할

서구 제국의 동방진출

- '대항해 시대'
 -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시작
 -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선두
 - 새로운 무역로 개척
 - 천주교의 포교 활동
- 중국, 한국, 일본의 해금 정책
 - 1757년 중국 광주 개방
 - 광둥무역제도(중-서 간의 독점 민영 무역)

광동무역제도란?

- 중국 상인에 의한 일본, 동남아 무역 → 밀무역 '왜구'
- 1685년 청나라 강희제, 해금(海禁) 해제
 - 중국 상인의 해외 도항과 외국 선박의 중국 내항(來航) 허용
- 1757년 유럽과 동남아시아 무역을 광주항에 한정 허용
 - ∴ 광동무역(廣東貿易) 시작
 -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광주 상관(商館)에서 교역
 - 교역 기간 외 광주 상주 금지
 - 가족 여성 동반 X
 - 상관(商館) 밖 출입 금지

광동무역의 추이

-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이 선두
- 네덜란드
 - 기독교 포교나 식민지의 획득 X, 상업활동 주력
 - 상인들이 공동 출자하여 동방 무역을 위한 항해 조직
→ 출자금으로 상설 무역기구 조직(동인도회사)
- 영국
 - 1600년 동인도회사 설립, 인도 무역에 종사
 - 17세기 말 광동 무역 진출
 - 18세기 네덜란드 압도

영국, 무역, 식민지 그리고 차(茶, tea)

- 비단, 도자기 → - 17세기 후반 중국산 차(茶) 거래
-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둥 무역 진출, 영국 내 차(茶) 가격 인하
→ 18세기 초 차(茶) 소비 증가
- 차(茶)의 관세 문제
 - 관세의 인상, 反稅 감정 & 밀수입 초래
→ 북미 식민지 反稅 운동이 독립운동으로까지
 - 1748년 減稅 정책 시행
- 19세기 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(茶)의 90% 이상 독점
- 차(茶) 수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?
 - 은화(銀貨)의 조달을 위한 해결책 → 아편(Opium)

아편과 중국(淸) - 영국 동인도회사

- 아편, 17세기 초 마약으로 사용되기 시작
-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유입
- 해금령 해제로 연해 지방을 중심으로 유입 증가
- 1729년 청조 당국의 금연령(禁烟令)
 - 동인도회사 측도 아편 밀수 금지
- 동인도회사 : 벵갈 지배, 아편 전매 제도 실시
- 아편 무역 : 영국의 해외 무역 및 인도 통치의 수단, 인도-동남아시아-중국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업자들에게 아편 무역 일임
- 아편의 유입으로 중국에서 은화(銀貨) 유출 → 아편 무역 분쟁

아편전쟁(Opium War)

- 차(tea, 茶)의 수입과 관세
- 은화 조달의 문제
- 아편 무역



보스턴 차사건



난징조약

- ① 廣州, 厦門, 福州, 寧波, 上海 5항을 개방한다.
- ② 公行(洋行)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.
- ③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.
- ④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주시킨다.
- ⑤ 중영 양국 관헌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.
- ⑥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.

난징조약-추가협정

- ①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從價 5%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행사한다.
- ③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最惠國待遇를 부여한다.
- ④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.

텐진조약

- ① 체약국의 외교사절은 가족을 동반하고 北京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,
- ② 이미 개방된 5港 이외에 牛莊·登州·漢口·九江·鎮江 등 11개항을 추가로 개방하고,
- ③ 체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 영사가 발급하고 중국 관헌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할 수 있다.
- ④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
- ⑤ 중국인의 해외 도항을 공식으로 인정